윤선도의 五友歌와 Ecosystem

"O-Woo-Ga" by Yoon Sundo and Ecosystem

이애란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사람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때면 읽어주는 옛 시조가 있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산중신곡' 중 마지막 시조인 '오우가(五友歌)'이다.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는 이 다섯 친구를 단지 '자연' 이란 변치 않는 친구라는 교육적 내용으로만 여겼었다. 윤선도가 이 시조를 지은 것이 방년 56세. 생애의 말단에 찾아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태계의 측면에서 이 시조를 분석해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바로 이 다섯 친구는 지구상 생존조건의 3요소인 것이다. 물, 녹색식물,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있는 땅. 윤선도의 첫 번째 친구 '水'와 생존조건의 첫 요소가 일치한다. 또한 두 번째 친구인 '石'은 생명체의 생존기반인 땅이다. 이 두 친구가 만나면 생태다양성의 보고인 습지가 만들어진다. 물을 머금은 땅 바로 '습지'. 이 두 요소만 있으면 그 다음 친구들인 송과 죽 즉 녹색식물이 생존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친구들인 '松'과 '竹'. 생태계의 관계성으로 본 소나무와 대나무이다. 생태계의 4대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인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 원리인 순환성은 위의 두 나무로 해석할 수 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핵심생태계의 수직관계 즉 생태적 안정성의 보고인 서식처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점종(優占種)이다. 소나무가 없다면 온대기후인 우리나라의 지하, 지표, 지상의 생태피라미드의 안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대나무는 모든 사람이 알듯이 뿌리가 옆으로 뻗어 수평생태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우리나라 수림대의 대표적인 자산이다. 유연하고 부드러워 바람을 막아주고 토양을 정화시키며 각종 동식물들의 먹이처와 피난처, 산란처가 되는 서식처(habitat)이다.

셋째, 달이다. 태양계에서 수많은 행성 중 유일한 단 하나의 생물권(biosphere) 지구. 그 지구의 순환원리를 이끌어주는 요소를 마지막 벗으로 결정한 것이다. 생태계의 두 번째 원리 순환성. 우리가 계획을 하며 가장 많이 다루는 녹과 물, 바람의 네트워크는 결국 달의 공전원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육지와 바다의 순환성에 기초한다. 이러한 생태적 원리는 자연스레 자연성과 다양성을 띄게 되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윤선도는 60세인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에 가까이 와서야 이 친구들을 진정한 벗으로 여겼던 것일까. 우리들은 벌써 선인의 지혜의 힘을 빌려 이미 다섯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가보다. 이 외수는 '발상의 전환'이란 에세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의 글을 빌어 짧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하찮은 것들에 눈물겨워한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대개 시가 터져 나온다고 한다. 그런 시를 일컬어 오도송(悟道頌)이라 한다. 대부분의 오도송은 자연을 이야기한다. 달빛을 얘기하거나 강을 얘기하거나 산을 얘기한다. 지천으로 공짜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감동한다. 그대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실로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가야 한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주)정림건축, 솔토조경, 희림건축을 거쳐 현재 (주)해안건축에서 조경설계실을 맡고 있다. 조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취득하였으며,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아주대, 단국대, 연세대 건축학과에서 조경과 건축을 강의하고 있다.